

Казахстанско-корейский медицинский семинар прошел в Алматы

стр. 4

...또 하나의 장점은 산 곳곳에 호수가 있다는 점이다. 산은 특히 설산은 호수를 끼고 보는 풍경이 아름답다. 미서부와 유럽 산이 매력적인 이유다.

стр. 10

Энергетические напитки, курительные смеси, клубные наркотики – предпосылка к катастрофе

стр. 12

Республиканск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Издается с 1 марта 1923 г.

Выходит один раз в неделю.

www.koreans.kz

КОРЕ ИЛЬБО

고려일보

БУДЬТЕ БЛИЖЕ К ИСТОКАМ

뿌리를 잊지 말자



Сканируйте QR-код и переходите на сайт www.koreans.kz



Сканируйте QR-код и переходите в инстаграм «Коре ильбо»

44 (1842) 18 ноября 2022 года

Награды за сохранение родной культуры



стр. 3

학과의 이익을 항상 앞세우는 장호종 교수



стр. 8

А как на свете без мечты прожить?



стр. 5

«ОСЕННИЙ ВЕЧЕР» ВСТРЕТИЛИ В ВКО



Праздник почитания предков 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за урожай Чусок прошёл в Усть-Каменогорске. Лучшие поздно, чем никогда. Так реш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торжества –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Восточно-Казахста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урочив к этому событию торжественное вручение юбилейных медалей «30 лет Дома дружбы ВКО» 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х писем за вклад в реализацию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этно-

политики, укрепл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огласия, мира и единства.

Ева КИМ, Усть-Каменогорск

Празднич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ялось в зале областного Дома дружбы. На входе можно было полюбоваться небольшой выставкой предметов быта корейцев, национальными костюмами,

музыкальными инструментами, с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ся с девушками в ярких ханбоках. Затем началось вручение наград активистам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ВКО,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была и автор этих строк, получившая юбилейную медаль. Бесспорно, такое высокое признание заслуг во благо ассоциации и общества в целом – это большая честь!

стр. 3

알마티서, 제24회 KBS 한민족체험수기 시상식 열려

제24회 KBS 한민족체험수기 시상식과 축하공연이 고려인동포사회의 중심지인 카자흐스탄알마티에서 10일(현지시간), 성대히 개최되었다.

KBS한민족방송이 주최하고 고려문화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체험수기 수상자들 뿐만 아니라 주말마티총영사관의 박내천총영사, 신유리 카자흐스탄고려인협회장, 신안드레이 알마티고려문화중앙회장, 박따티아나 독립유공자후손회장 등을 위시한 고려인 동포, 한국어수강생 등 400여명이 참석하여 수상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축하공연을 감상했다.

홍순영 KBS 사회공헌방송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매년 한민족 체험수기를 실시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3년간 시상식을 못했다»면서 «한류열풍의 중심지이자 지난해 항일독립운동 영웅인 흥병도 장군의 유해가 고국으로 봉환된 이곳 카자흐스탄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стр. 7

운명을 반영하는 신문

<고려일보> 발간 100주년에 즈음한 특별 프로젝트의 범위내에서 <선봉> - <레닌기치> - <고려일보> 신문이 발간되는 전 기간 (1923 - 2023년)에 신문사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약력을 계속 게재한다.

리신 (홍파)
<선봉>신문 농업부 부장
(1928-1932).

1899년 3월 4일 함경남도 흥원 군에서 태어났다. 그는 또한 리민원, 리민화, 리홍파, 철성돈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졌다. 1919년에 조선에서 3.1운동 봉기에 참가하였고 청년동맹 조직자로서도 활동하였다. 청년동맹은 봉기자들을 위해 자금을 모았으며 무기를 구매하여 운반했다. 봉기가 진압당한 후에 만주로 망명했다. 1919-1921년에 이만 <군비단> 조선빠르치산 부대에 소속되었는데 남부 만주에 조직된 이 부대는 러시아 뿌리모리에 지대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원동에서 국내전쟁에 참가하였다. 1921년 봄에 <군비단> 부대 임시 지휘관으로 활약했다. 1922년에 조선에서 지하공작을

하면서 만주에서 일본간첩망을 없애는 투쟁에 참가하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5년간 감금되었다. 그런데 8개월 후에 감옥에서 러시아로 도주하였다. 1923년에 노보-고레이스카야 촌에서 (블라디보스톡) 조선적기 <재기단> 부대 부위원장으로 선거되었다. 이 부대를 조선공산당 <상해>파벌 대표들이 조성하였는데 리신 (홍파)이 그에 속하였다. 그는 1925-1927년에 조선공산주의 운동 활동가 박진순 (1897-1938) 과 함께 <상해>파벌 조선공산주의 운동 지도자 리동휘 (1873-1935)의 과업을 맡아 중국 지역에서 지하활동에 참가했다. 1927-1928년에 블라디보스톡 소비에트당학교에서 공부하였다. 1928-1932년에는 <선봉>신문 농업부 부장으로 일했다. 1932-1935년에 포시예트 기계뜨락또르 기업소에서 부지배인으로 근무했다. 1935-1936년에는 하바롭스크 시 고등 공산주의 농업 학교에서 공부했다. 1931년에 공산당에 입당했다. 1936년 1월에 반혁명 활동을 했다는 기소로 내무인민위원회에 체포되었다. 하바롭스크 시 감옥에 갇혀있었다. 5년

간 자유박탈형을 받았다. 케메롭스크 주에 있는 내무인민위원부의 시비리 수용소에서, 다음은 꼬미소베트사회주의자치공화국 내무인민위원부 우흐타빠초라수용소에서 형기를 보냈다. 1941년에 석방되었다. 원동군구군법회의의 판결에 따라 1955년 10월 24일에 그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리신은 1940년대와 1950년초에 모스크바에 있었다. 1954-1973년에 스타브로폴리 변경 예센뚜끼 시에서 살았다. 그는 조선빠르치산 부대장 홍범도 (1868-1943)에 대한 회상기를 썼다. 그는 <전투공로>메달 (1967), <1941-1945년도 위대한 조국전쟁에서 독일에 대한 전승>메달, 대한민국 <독립>상장을 받았다. 공화국급 개별년금생이다. 1973년 5월 19일에 사망하였다. 예센뚜끼 시 중앙 공동묘지에 안치되어 있다.

근거자료
웨.베.스바킵쓰끼 명칭 예센뚜끼 역사향토 박물관 문서보관소.
홍파 인사기록부//하바롭스크 변경국립문서보관소. 폰드 베-341. 목록 2. 공문서 240.



서적:
조선독립을 위한 투쟁에 참가한 러시아 고령인들. 3권/편찬. 웨.웨.최, 데.웨.신. 서울-모스크바, 2019.
고령인들 - 1934-1938년도에 소련에서 있는 정치탄압 희생자들/저자-편찬인. 에쓰.구-제가이, 리현근. 3권. 엠., 2004.
김 엠.페. 원동에서 소비에트주권을 위한 투쟁에 참가한 조선국제주의자들 (1918-1922). 엠. 1979.

협조

몽고 바얀-올기 시장의 알파라비 카자흐국립대 방문

타스테미로바 굴샤라(카자흐국립대 예비학부 부교수)
세릭바예바 자리빠(카자흐국립대 한국학과 수석교원)

지난 2022년 11월 3일, 몽고의 바랏잔 달렐울르 바얀-올기 시장이 알파라비 카자흐국립대학교를 방문했다. 그는 방문 과정에서 대학본부 지도부 및 예비학부 교수진과 만남을 가졌다. 그는 또한 방문 기간 동안에 바랏잔 달렐울르 시장은 몽고에서 카자흐국립대로 유학을 온 몽고 학생들과도 만남을 가졌는데, 만남 동안에 유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또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묻는 등 훈훈한 대화의 시간을 나누었다. 아울러 바랏잔 달렐울르 시장은 몽고에서 온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에 불편없이 적응하는 데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카자흐국립대학교 지도부와 교수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나아가 그는 이후에도 몽고의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이 카자흐국립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알파라비 카자흐국립대학교 지도부와 예비학부 운영진, 그리고 방문손님인 바랏잔 달렐울르 시장과의 만남은 시종일관 건설적이고 훈훈한 대화 속에서 진행되었다. 카자흐국립대 예비학부 사비트 수아타이 학장은, 몽고에서 온 학생들은 학업에만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역사와 문화, 전통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향후 카자흐스탄-몽고 간에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해 줄 훌륭한 인재들이다" 라고 언급하며 몽고 출신 유학생들을 칭찬했다. 바랏잔 달렐울르 시장과의 만남은 특별히 몽고 유학생들이 준비한 소규모 콘서트 프로그램을 관람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행사 말미에 예비학부 사비트 수아타이 학장은 대학을 대표하여 바랏잔 달렐울르 시장에게 방문에 대한 감사의 인사말씀과 더불어 카자흐 전통의상과 기념선물을 증정했다. 행사 이후 바랏잔 달렐울르 시장은 카자흐국립대학교 중앙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자료실과 열람실 등 도서관 내의 각종 시설과 공간들을 둘러보았다. 또한 1층에 위치한 알파라비 박물관을 방문하여 알파라비의 지적이고 정신적인 유산에 대해서도 소개 및 안내를 받았다. 카자흐국립대학의 국내외에서의 위상은 최근 수년 동안 눈에 띄게 높아졌다. 특히 세계대학 순위는 150위 권으로 더 상승되었다. 내실을 다져가면서, 한편으로는 해외의 대학들과 꾸준히 교류와 협력을 통해 대학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몽고에서 온 "손님"의 방문은 또 한번의 좋은 교류와 협력의 기회가 되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알마티서 열린 국제식품박람회서 K-푸드 홍보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 국제식품박람회서 K-푸드의 매력이 발산됐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된 '2022 카자흐스탄 국제식품박람회(FOOD EXPO QAZAQSTAN)'에 한국관을 참가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은 카자흐스탄 국제식품박람회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유럽의 식품 바이어, 유통 벤더 등 28개국 450여 개사가 참여하는 중앙아시아 대표 박람회다. 공사는 중앙아시아 진출의 거점 시장인 카자흐스탄 시장 공략을 위해 한국관을 구성,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떡볶이 등 쌀 가공식품과 농가 소득 연계 품목인 유자차, 장류 등 다양한 K-푸드를 선보였다. 기노선 수출식품이사는 "올해는 한국·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을 맞아, 공사는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수출 확대를 위해 알마티에 시장개척요원을 파견해 다양한 수출사업을 펼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카자흐스탄을 넘어 중앙아시아, CIS 지역 식품시장 공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알마티서, 한국전통주 홍보행사 열려

한국 전통주의 해외시장 인지도 제고와 소비확대를 위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주최하고 한국전통주수출협의회가 주관한 '한국 전통주 홍보행사'가 7일(현지시간)로 알 툴립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현지의 주류 수입업체 및 애호가 100여 명이 대상으로 전통주수출협의회 소속 업체들이 30여개의 한국 전통주를 소개했다. 박내천 총영사는 "금번 행사가 한국 전통주를 세계화하고 전통주를 매개로 한-카 유통서비스업계가 상호발전할 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습니다.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안동소주, 한산소곡주, 전주이강주 등 36개 제품을 선별해 행사 참가객 대상 시음행사를 진행하고, 카자흐스탄 현지인에게 잘 알려진 막걸리와 소주 이외에도 한국산 와인 및 인삼주 등 다양한 재료와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한국전통주의 품질과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장을 펼쳤다. 홍보행사는 현지 바이어들과 전통주 수출업체간의 비즈니스 매칭 수출상담회가 진행되었으며 바이어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참여 수출업체들은 MOU를 체결했다. 본 행사에서는 전통주수출협의회가 참가객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주의 역사, 종류, 우수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했고, 한국전통주의 맛과 특징을 설명하며 현지인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고려극장 공연팀의 북춤 등 한류공연이 펼쳐져 참가자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시음행사는 카자흐스탄 현지인들에게 익숙한 스탠딩 테이블 형태로 구성하여 수출업체 및 참가객들이 자유롭게 시음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더욱 효과적인 행사 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